

생각이라는언어는최고로고귀한언어이다.

오늘 밥다다 앞에서 2종의 형태를 가진 이들의 2종의 집회가 열리고 있다. 양쪽 모두 사랑을 가진 자녀들의 집회이다. 하나는 육신의 형태를 가진 자녀들의 집회다. 다른 집회는 사랑을 가진 자녀들이 미묘한 형태로 만나는 집회다. 사랑의 대양 아버지와 만남을 축하하면서 미묘한 형태인 온 사방의 자녀들 모두 밥다다 앞에서 그들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다. 밥다다는 모든 자녀들의 사랑의 생각, 그들 마음속에 있는 열성과 열의의 여러 가지 생각을 듣고 있으며, 그들 마음속의 여러 다양한 느낌뿐 아니라 그들의 권리에 대해서 자녀들이 말하는 다정한 얘기도 역시 듣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사랑하는 관계에 대한 권리를 가졌기 때문이다. 자녀들은 아버지 앞에서 각자 마음의 상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 상황에 대한 상태, 봉사 소식을 논의 언어와 고귀하며 사랑하는 생각의 언어로 뚜렷하게 표현하고 있다. 밥다다는 모든 자녀들이 세 가지 형태 모두로 하는 진심의 대화를 듣고 있다. 한 가지 대화는 논의 언어를 통한 대화이다. 두 번째 대화는 느낌의 언어로 하는 대화이며, 셋째는 생각의 언어로 나누는 대화이다. 말의 언어는 통용되는 언어인 반면, 이 세 가지 언어는 영적 요기들의 삶에서 쓰이는 언어들로서 오직 영적인 자녀들과 영적인 아버지만이 알고 경험한다. 너희가 더욱 내향적이 되어 달콤한 침묵에 더 많이 안정되어 지낼수록 너희는 이 세 언어를 통해서 그만큼 더 많은 경험을 모든 영혼들에게 줄 수 있을 것이다. 알로킧한 이 언어들은 참으로 강력하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제 말로 하는 언어를 듣고 말하는 데 지쳤다. 말로 하는 언어로는 어떤 상황을 설명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반면 논의 언어는 그저 신호만 해주는 언어이다. 마음속 느낌의 언어는 너희의 얼굴에 떠오른 표정으로 드러난다. 너희의 얼굴에 나타나는 표정은 마음속의 느낌을 드러낸다. 예를 들어 어떤 이가 다른 사람 앞에 갈 때 그 사람의 눈과 생김새는 그가 사랑을 갖고 왔는지 또는 적대감이나 이기적인 동기를 갖고 왔는지를 알려준다. 그래서 너희는 얼굴 표정을 통해서 느낌의 언어를 알고 말할 수 있다. 생각의 언어도 비슷해서 모든 언어들 중에서 가장 고귀한 언어인데, 왜냐하면 생각의 힘이 최고로 고귀한 힘이고 본래의 힘이기 때문이며, 그래서 모든 언어들 중에서 제일 빠른 언어는 생각의 언어이다. 어떤 이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너희에게 통신시설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라 해도, 생각의 언어로 너희는 누구에게든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유용해질 것은 바로 이 생각의 언어이다. 과학의 시설들이 소용없어질 때 침묵의 이 편의시설들은 유용할 것이다. 하지만 연결되기 위해서는 선이 항상 뚜렷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아버지 한 분과 더불어서 그가 이제껏 너희들에게 준 지식으로 바쁘게 지내고, 또 그 지식으로 봉사하며 한결같이 바쁘게 지내는 훈련을 더 많이 쌓을수록 너희의 선은 그만큼 고귀한 생각들로 더 뚜렷해질 것이다. 방해물 일으키는 것은 낭비적인 생각들이다. 일체의 낭비를 다 끝내고 오직 강력한 생각만 가질수록, 사람들이 말의 언어를 경험하는 것처럼 그들은 그만큼 더 고귀한 생각의 언어를 분명하게 경험할 것이다. 생각의 언어는 1초에 말의 언어보다 훨씬 더 큰 경험을 누구에게든 줄 수 있다. 생각의 언어로 너희는 1초에 3분 짜리 설명의 요지에 대한 경험을 줄 수 있다. 너희는 그들이 기억해온 “1초에 해방된 삶”을 경험하게 해줄 수 있다.

내성적인 영혼의 언어는 이 영적인 언어이다. 이제 때에 의해서 너희는 이 세 언어 모두를 가지고 쉬운 성공을 경험할 것이다. 시간과 노력은 더 적게 들면서 성공은 쉬울 것이다. 그러니 이제는 이 영적인 언어를 연습해라. 그래서 오늘 밥다다는 이 세 가지 언어를 통해서 자녀들의 말을 듣고 있으며 또 모든 자녀에게 응답해주고 있다. 모든 이의 깊은 사랑의 모습을 보면서 밥다다는 그 사랑 전체를 사랑의 대양 속에 합치고 있다. 그는 모든 이의 기억을 하나의 기념물로 만드는 고귀한 축복을 모든 이에게 주고 있다. 각자의 마음속의 다양한 느낌들을

알기에 밥다다는 자녀들 모두에게 그 느낌들 전부에 대한 응답을 “항시 장애 없이 지내라”라는 순수한 염원으로 보내주고 있다. 강력해져라. 온갖 힘으로 가득해져라. 아버지의 순수한 염원들로, 자녀들의 순수한 염원은 뭐든지, 상황에 따라 협조와 좋은 염원의 느낌이면 뭐든지 다, 순수한 그 염원들은 모두 다 밥다다의 고귀한 염원으로 계속 이루어질 것이다. 전진하면서 과거의 카르마가 일부 자녀들의 앞에 시험지의 형태로 오는데, 몸의 질병의 형태, 마음의 낭비적 폭풍, 또는 관계와 연결의 형태로 온다. 어떤 때는 면밀하게 협조적인 이들에게서 협조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약간의 갈등이 빚어진다. 하지만 그 모든 낡은 잔고와 낡은 빛이 정리되고 있다. 그러므로 중요되지 말고 너희의 지각을 강력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지각의 힘으로 너희는 그 낡은 부채를 빛으로 경험하지 않을 테며, 너희가 항시 합격할 수 있게 해주는 책임이 그것들에 있음을 경험할 것이다. 너희들은 지각에 힘이 없기 때문에 빛을 무거운 무게로 경험한다. 그렇게 되면 그 무게를 가졌기 때문에 너희는 지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결정을 올바르게 못해서 무게가 너희를 더 아래로 끌어내리기 때문이다. 그러면 너희는 높은 성공을 달성할 수 없고 그래서 빛이 정리되지 못하고 몇몇 경우에는 오히려 빛이 계속 더 늘어난다. 그러므로 오래된 부채를 청산하는 길은 한결같이 지각을 분명하게 유지하는 것이다. 지각에 그 어떤 부담도 담아두지 마라. 너희가 지각을 더 가볍게 유지할수록 지각의 힘은 너희가 더 쉽게 성공을 거둘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무슨 일이 일어났지? 어쩌면 이럴 거야...”와 같은 무게가 있는 낭비적인 생각을 끝내고 지각의 선을 선명하게 유지해라. 그것을 가볍게 유지해라. 그러면 너희의 용기와 아버지의 도움으로 너희는 계속 성공을 경험할 것이다. 이해하느냐?

더블라이트가 되지 못하고 너희는 그 대신 2배의 부담을 짊어진다. 과거의 잔고와 낭비적인 생각으로 2중의 무게가 너희를 위쪽으로 끌어올리겠느냐, 밑으로 끌어내리겠느냐? 이런 이유로 밥다다는 특히, “너희의 지각에 무게가 있다면 항상 계속해서 그것을 청산해라”라고 너희 자녀들 모두의 주의를 끌고 있다. 어떤 유형의 부담이든 그것은 지각의 요가를 카르마의 부채로 고통 받는 것으로 바꿔놓는다. 그러니 항상 너희의 지각을 가볍게 유지해라. 그러면 요가의 힘과 지각의 힘은 어떤 유형의 괴로움도 끝낼 것이다.

봉사에 대한 모든 이의 다양한 형태의 열의가 밥다다에게 와 닿았다. 어떤 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타적으로 봉사하는 그 정도만큼 주님은 흡족하다. 주님이 기뻐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는 너희의 마음에 충족감이 있고 봉사가 성공한다는 것이다. 이제껏 너희가 한 것은 뭐든 다 좋았고, 지금 너희가 여전히 하고 있는 것들도 다 좋다. 너희가 더 발전하면서 그에 따라 그것은 더욱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밥다다는 온 사방의 모든 자녀들에게, “변함없이 계속 발전하고 올바른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계속 성장해라”라고 축복의 형태로 사랑과 기억을 보내주고 있다. 이 축복과 더불어 밥다다는 사랑과 기억을 수백만 배로 주고 있다. 밥다다는 손으로 편지를 썼거나 마음으로 편지를 보낸 자녀들 모두에게 “고귀한 노력을 하면서 항상 이 고귀한 삶을 계속해서 살 지어다”라고 축하와 함께 응답을 보내주고 있다. 그렇게 고귀한 사랑의 느낌으로 밥다다의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

아이이며주인.

오늘 밥다다는 그의 샹티 군대를 보며 이 영적인 샹티 군대가 마음의 정복자들이며 세계의 정복자들인지 아닌지를 보고 있다. 마음의 정복자가 된다는 것은 마음의 낭비적이거나 부정적인 생각의 정복자가 된다는 뜻이다. 이런 식으로 승리하는 자녀들은 세계 왕국에 대한 권리를 차지한다. 이런 이유로 “너희가 마음을 정복하면 세계를 정복한다”라는 말이 기억된다. 너희가 생각의 힘, 즉 마음을 더 잘 통제할수록 너희는 그만큼 세계 왕국에 대한 권리를 더 많이 차지한다. 지금 이때에 너희들은 신의 자녀이며, 오직 지금 자녀인 이들만이 세계의 주인이 될

것이다. 너희는 아이가 되지 않고는 주인이 될 수 없다. 유한한 주인인 데서 생기는 제한된 도취감이 무엇이든, 그것을 다 끝내고 아이가 되어라, 오직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아이가 주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신봉의 길에서 어떤 이가 한 나라의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나 엄청난 부의 주인(소유자) 또는 가정의 어른이라도 아버지 앞에서 기도할 때는 “저는 당신의 자녀입니다!”라고 할 것이다. 그가 “저는 이러이러한 주인입니다”라고 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너희 브라민 자녀들도 역시 자녀들이 되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 태평한 황제들이고 미래에 세계의 주인, 즉 황제들이 된다. 아이이며 주인이라는 의식은 너희에게 항상 무체 단계와 예고 없는 단계의 경험을 준다. 아이가 된다는 것은 한정한 너희들의 삶을 변환시킨다는 뜻이다. 너희가 브라민이 되었을 때, 각자가 브라민 생에 배운 모든 가르침 중에서 첫 번째였으며 제일 쉬운 것이 뭐였느냐? 자녀들은 “바바!”라고 했고, 아버지는 “자녀야!”라고 했다. 단 한 마디인 이 가르침이 너희를 지식으로 가득하게 만든다. 만일 “자녀야”라는 한 마디에 대한 가르침을 이미 공부했다면 너희는 이 세계 하나뿐 아니라 세 가지 세계 전부에 대한 지식을 모두 다 배운 것이다.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제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 한들 세 가지 세계 전부에 대한 지식을 알 수는 없다. 이 측면에서 엄청나게 지식으로 가득한 자들도 이 한 마디 말을 공부한 너희들 앞에서는 무지하다. 너희는 참으로 쉽게 지식으로 충만한 마스터들이 되었다. 바바와 자녀들, 이 두 단어 안에 모든 것이 들어 있다. 나무 전체가 씨앗 안에 들어 있다면, 아이(бат체)가 된다는 것은 변함없이 마야에게서 안전하게 머문다는(бат체 후에) 의미이다. 마야에게서 안전하게 지내라, 즉 항상 너희가 자녀라는 것을 의식해라. 항상 “나는 자녀다!, 즉, 나는 구제되었다”라는 의식을 가져라. 이 가르침이 어려우냐? 그것은 쉽다, 그렇지 않으냐? 그런데 너희는 왜 그것을 잊느냐? 일부 자녀들은 자기들이 그것을 잊기를 원하지 않는데도 잊는다고 생각한다. 너희들이 잊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은 “그것은 아주 뿌리깊은 산스카라, 또는 아주 오래된 산스카라입니다”라고 대답한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이미 산 채로 죽었다. 너희가 죽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너희들은 화장의 예식을 치른다, 그렇지 않으냐? 너희가 새로운 생을 취하는 것은 낡은 것들을 태워버리고 나서의 일이다. 너희가 이미 화장의 예식을 치렀다면 낡은 산스카라들이 어디에서 왔느냐? 시신을 화장하면 이름과 형태 등 일체의 모든 흔적이 끝난다. 그래서 혹시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한다면 너희는 “이 사람은... 그랬지”라고 과거형으로 말할 것이다. “이 사람은... 이래”라고 현재형 시제로 얘기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처럼 시신이 화장되면 몸은 이미 끝났다. 브라민으로서의 생에서 너희는 무엇을 태워버리느냐? 여전히 같은 몸을 갖고는 있지만, 너희는 낡은 산스카라, 오래된 기억들, 낡은 성질을 화장하고, 그래서 그것은 산 채로 죽는 것이라고 불린다. 화장식을 이미 거행하고 낡을 때, 낡은 산스카라들이 어디서 오느냐? 이미 화장시킨 이가 만일 너희들 앞에 나타난다면 그것을 뭐라고 부르겠느냐? 너희는 그것을 유령이라고 부를 것이다. 것처럼 여기서도 역시 만일 화장한 산스카라가 되살아난다면 너희는 뭐라고 하겠느냐? 그것도 역시 마야의 유령이다, 그렇지 않으냐? 유령들은 쫓아낸다. 그들에 대한 얘기는 심지어 입에 올리지도 않는다. 너희는 그것들을 낡은 산스카라라고 부름으로써 단지 자기 스스로를 속일뿐이다. 오래된 것들을 좋아한다면, 그 경우에는 너희의 본래의 산스카라인 정말로 오래된 것들을 기억해라. 저것들은 중간 시대의 산스카라였다. 그것들은 제일 오래된 것들이 아니다. 중간은 가운데의 시대이니 중간을 기억하는 것은 대양의 한가운데서 괴로워한다는 뜻이다. 그러니 그런 나약한 것들에 대해서는 아예 생각도 하지 말아라. 항상 “아이와 주인”, 이 두 단어를 기억해라. 아이라는 의식은 자동적으로 주인이 되는 의식을 불러온다. 아이가 되는 방법을 너희는 모르느냐?

아이가 되어라, 즉 일체의 모든 짐으로부터 가벼워져라. 때로는 “당신의 것”이라고 하고, 다른 때는 “나의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그 일을 어렵게 만든다. 일이 어려워지면 너희는 “당신의 일을 당신은 아시죠!”라고 한다. 그것이 쉬울 때는 너희가 “내 것”이라 한다. “내 것”이라는 의식을 끝낸다는 것은 아이이며 주인이라는 뜻이다. 아버지는 “거지가 되어라”라고 한다. 그 집,

즉 몸마저도 너희들의 것이 아니다. 너희는 그것을 임대했다. 신을 위한 봉사에 그것을 쓰도록 바바가 그것을 너희에게 빌려주고, 너희를 위탁관리인으로 만들었다. 그것은 너희에게 맡겨진 신의 귀중한 부동산이다. 너희들은 가진 모든 사물에 대해서 “이것은 당신의 것입니다”라며 그것을 아버지에게 주었다. 너희들은 이 약속을 하지 않았느냐? 아니면 너희는 잊었느냐? 이 약속을 했느냐? 아니면 “반은 당신의 것이고 반은 제 것입니다”라고 하느냐? 너희가 이미 “당신의 것”이라고 바바에게 얘기한 것을 여전히 너희들의 것이라 여기며 썼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그것을 통해서 너희가 행복을 경험하겠느냐? 너희가 성공하겠느냐? 그러니 만일 그것이 너희에게 위탁된 것일 뿐, 바바의 것이라고 여긴다면, 너희는 자동적으로 아이이며 따라서 주인이라는 행복과 도취감을 느낄 것이다. 이해가 되느냐? 그러니 한결같이 이 가르침을 굳게 간직해라. 너희는 이 가르침을 이미 확고하게 만들었다, 그렇지? 아니면 너희들의 장소로 돌아가면 그것을 잊을 것이냐? 어느 것 하나도 잊지 않는 이들이 되어라. 앗차.

아이이며 주인이라는 영적 도취감을 끊임없이 느끼는 자녀들에게, 변함없이 아이라는 의식을 가지는 이들, 즉 한결같이 태평한 황제임을 의식하는 이들에게, 그들에게 맡겨진 것들을 끊임없이 봉사에 사용하는 자녀들에게, 새로운 열성과 새로운 열의를 가진 자녀들에게, 밥다다의 사랑과 기억과 나마스테.

축복: 너희 스스로를 변화시키고 “특별”이라는 말을 의식하며 완성이라는 너희의 목표에 도달해라.

“나는 특별한 과업을 위한 도구인, 특별한 영혼이다”라는 이 의식을 항상 갖고서 특별함을 보여라. “특별한”이라는 말을 특히 기억해라. 너희가 말하는 것을 특별하게 하고, 너희가 보는 것을 특별하게 하며, 너희가 행하는 것을 특별하게 하고, 너희가 생각하는 것을 특별하게 해라. 모든 것을 다 특별하게 만듦으로써 너희는 쉽게 자아-변화자이며 세계 변모자가 될 것이고, 완성이라는 목표를 쉽게 이룰 것이다, 즉 쉽게 너희의 목적지에 도달할 것이다.

슬로건: 장애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들을 시험지라고 여기며 그것들을 통과해라.

*** 음 산티 O M S H A N T I ***